

## 한쪽 문이 닫히면, 열린 다른 쪽 문을 보라.

When one door closes, another opens; but we often look so long and so regretfully upon the closed door that we do not see the one which has opened for us. (Alexander Graham Bell)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후회스럽게 닫힌 문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사방이 다 벽으로 느껴지고, 마치 꼭 막힌 벽장 속에 갇혀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도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었다면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저의 경우는 소중한 한 분과의 대화 속에서 위안을 얻고 희망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오늘의 주제와 비슷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군요.

‘미로는 반드시 나가는 문이 있는 법이고, 벽장에 갇힌 거라면 들어가는 문이 있었기 때문이니 반드시 나오는 문도 있다’고 말씀

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일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었을 때, 그 분은 저에게 “내가 당신이 살아 온길 아는 데, 지금부터 좀 뻘뻘해져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숨이 막힐 것 같습니까? 심호흡하고 하늘을 한 번 쳐다보십시오. 마치 사방이 막힌 벽장 속에 갇힌 것 같습니까? 방금 닫힌 문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쪽으로 시야를 돌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다른 쪽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열린 문 쪽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세요. 누구도 문이 없는 벽장 속에 당신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